
가정예배 디자인

- 부모발달을 중심으로

가정교육

2019. 12. 20

작성 박미향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가정예배 이해
 - 1) 가정예배 의미
 - 2) 문제점
3. 가정 이해 - 부모중심
 - 1) 가정생활 주기별 발달
 - 2) 부모발달
 - 3) 부모역할
4. 가정예배 디자인
 - 1) 지속가능한 가정예배
 - 2) 가정유형 보완 가정예배
5. 나가는 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의무이다.”(Joel R. Beeke)¹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를 고민하고 함께해 오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아이들의 삶까지 녹아 들지 못하는 것이다. 주일학교를 위해 가정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정을 우선에 두지 못했었다. 하지만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중심에는 가정이 특히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가정예배이다. 가정예배에 대해 고민해 보고, 관련 이론을 적용해 가정예배를 디자인해보고자 한다.

가정예배 이해

1) 가정예배 의미

가정예배는 가정에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예배의 신학적이고 예전적인 핵심원리 7가지²를 보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 가정예배는 본질적으로 예배이다.
- 예배의 두 기둥은 은혜와 감사이다.
- 가정예배는 숙제가 아닌 즐거운 책임이자 축복이다.
- 말씀, 기도, 찬양은 가정예배의 필수요소이다.
- 가정예배는 모든 가족들이 참여적이고 되도록 세밀히 준비하고 드러져야 한다.
- 가정예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한다.
- 가정예배는 가정 안의 구체적인 사건들과 함께 더불어 드러질 때 더욱 풍성해진다.

2) 문제점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 가정은 많다. 그러나 막상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쉽지 않고, 또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습관의 문제이다. 대부분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시점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교회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접하게 되는 때가 많다. 그때부터 가족이 함께 예배를 시작하다보면 가족모두가 적응의 시간을 거치게 되고 습관이 되기까지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아이들이 자라고 사춘기에 접어들고 갈등상황들이 생겨나면 가정예배는 자연스럽게 중단되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도 동일하게 발달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접근으로 가정예배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¹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들어가는 말에서 발췌

² 신형섭, 예배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가정발달 이해

1) 가정생활 주기별 발달³

(1) 가정 형성기

- 두 사람이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첫 자녀를 낳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부부로서 서로에게 적응하며 함께 발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기본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2) 가정 확대기

- 자녀가 출생하고 성장하여 독립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가족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고 가정생활의 규모가 커지는기간이다.
- 가족생활이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부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가정 확대기는 자녀 양육기와 자녀 교육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녀 양육기

- 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따라 부부가부모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 부부의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는 전환기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이나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부부 간에 친밀감과 상호 의존성을유지하면서 자녀 양육능력을 잘 발달시켜야 한다.

자녀 교육기

-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취업, 결혼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 부부는 자녀교육과 노부모 부양의 의무적 역할을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 부모는 본격적인 학교 교육을받게 되는 자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자녀의 관심 영역과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요구가커지므로 이에 적절하게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3) 가정 축소기

- 자녀가 성인이 되어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부부만 남게 되거나,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는기간을 말한다.
- 이 시기에는 직업생활에서의 은퇴와 배우자 사망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녀 독립기

- 자녀가 취업, 결혼 등으로 가정을 떠나는 시기이다.
- 자녀가 자립한 성인이 되면서 어른과 어른이라는 평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부모 자녀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 자녀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며, 성인과 성인으로서의 관계로 대한다.

³ ZUM 학습백과

- 부모 역할에서 조부모 역할로 위치 전환이 필요하다.
- 오늘날 수명의 연장과 자녀 수의 감소로 자녀 독립이후 부부만 남아 생활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게 되면서 부부 간에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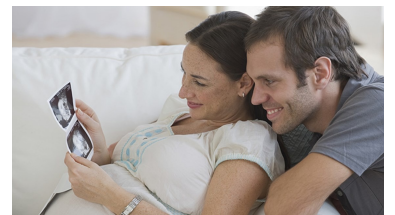
노후기

- 막내 자녀의 독립 이후 두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 이 시기에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무력감, 고독감 등에 빠지기 쉽다.
-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가치 있고 안정되게 보내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2) 부모발달⁴

1단계 : 이미지 형성기

임신기간, 자신들의 부모로서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이다. 이때 대부분 상당히 이상적 부모 이미지를 가진다고 한다. 이후의 부모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단계로 자신의 어린시절에 대한 복합적인 동일시와 기억에 기초하면서 주변의 환경과 그들의 속해 있는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상 정립. 부모로서의 기대를 고착시키고 구체화한다.



2단계 : 양육기

출산부터 영아가 끝날 무렵 18개월~24개월이다. 상상의 아기와 현실의 아기 비교 조화시키면서 안정된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고 수용한다. 아기수용은 아기와 애착을 형성하는 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부모-자녀의 심각한 관계로 변화되어 가족관계의 역동성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 부모들 모두 이 새로운 가족관계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된다.



3단계 : 권위형성기

아이가 만2세경부터~ 4-5세까지이다. 부모는 아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권위를 갖추게 된다. 자녀의 또래집단과 어울려 놀게 되고 교육기관 노출시기이다. 자녀의 사회관계의 확대로 통제된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일차적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아이의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거나 중재하려면 부모는 필수적으로 권위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부모의 권위는 자녀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때 많은 부모들은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던 이미지 재평가 하게 된다. 완벽한 부모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버리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4단계 : 설명하며 가르치는 시기(의사소통능력이 가장 필요한 때)

아이가 5세경부터 ~ 사춘기로 학령기에 해당된다. 자녀를 어린 시절의 상상의 세계로부터 현실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부모들은 자녀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나 과업을 일깨워주고 설명해주면서 차츰 독립된 개체로서의 생활 강조하게 된다. 부모역할이 다양화 된다. 자녀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발달과업을 잘 이해하



⁴ Galinsky 부모기의 6단계 이론

고 완수하도록 여러가지 설명을 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기대, 행위규범, 자녀들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부모의 느낌과 평가한다. 이 설명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녀를 심리사회적으로 독립시켜 가는 것, 그리고 자녀와 불평등한 권위관계로부터 비교적 평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

5단계 : 상호의존기

10대 청소년기로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형성한다. 이전의 권위체제도 아니고 어른을 대하듯 하는 태도도 옳지 않다. 아이의 발달, 변화에 맞춘 변화된 부모발달의 시기이다. 새로운 권위를 확보한다. 애정에 바탕을 두지만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권위가 필요하다. 10대는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장 숭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도 이것을 수용하고 견지할 때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성과 감정이 조화된 높은 권위가 요구된다. 10대들은 나를 찾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 이때 저항하고 반대하고 반항하는 어떤 실험 기간을 거쳐 자신을 시험해 보게 되는데 자신을 찾는 데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단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재 정의는 결국 분리된 자녀의 정체감을 수용해 가는 과정이다.



6단계 : 떠나보내는 시기

성인기 집을 떠나는 시기이다. 다 성장한 자녀의 부모로서 자신을 재정의 자녀와의 헤어짐에 대한 준비와 기대를 형성하고 수정한다. 이 시기 부모들은 가족모임 여행 등 새로운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떠나보내는 단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포기함으로써 변화된 분리와 결속의 관계를 맺게 되며 부모-자녀의 권위적 단계의 엄격한 통제에서 느슨하고 완화된 통제로 변화된다. 성장한 자녀는 이제 자신이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통제보다는 염려와 도움을 주는 복합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부모는 성장한 자녀의 분리된 정체감을 수용하여야 한다. 어렵기는 하지만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능력 그리고 자녀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가 어긋나 실망감이나 불신감이 생길 수 있으나 부모는 자녀는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장성한 자녀는 부모를 떠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되며 또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2) 부모역할⁵

가정을 이룬 부부는 '부부됨'을 훈련하고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됨'을 공부해가는 가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부모는 자녀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며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
-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원과 도움을 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자녀 양육 태도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자녀의 발달과 인성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어떤 사회적 역할보다 중요하다.
- 부모의 역할이 좋은 의도나 사랑만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지식,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 자녀가 성장하면서 욕구 수준과 발달과업이 달라지므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부모의 역할을 잘 인지하고 원만히 수행하여 자녀에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⁵ 토머스 고든 지음, 이훈구 옮김, 부모역할훈련, 양철북

가정예배 디자인

1) 지속가능한 가정예배

가정예배의 시작을 다르게 생각해본다. 위에서 보았듯이 가정은 결혼으로 부부가 되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가정예배도 이때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예배의 첫단추를 다르게 보는 것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는 시점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시작된다면, 부모 발달단계 1단계 진입 전부터 부부로 시작되는 것이 가정예배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모 발달 1단계를 준비할 수 있고 1단계 뿐만 아니라 전생애 가정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다고 생각된다.

각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한 몸 이룬 부부가 되고 서로 맞춰가기도 힘든 시기가 처음 가정 형성기 일 것이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 서로만 보고 있으면 더 해결이 안될 것이다. 그런 시기 예배가 답이 될 것이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서로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예배가 부부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가정의 문화가 되면 다음 가정 확대기에 부모가 되어서도 가정예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발달은 물론 아이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 아이의 발달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아이만 따라가기 바쁘고 안정된 양육보다는 불안정한 양육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우선 부모발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각자 가정의 시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에 맞춰 가정예배의 구성이나 방법등을 다르게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모델을 보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의 발달시기는 1단계 이미지 형성기에서 4단계 설명하며 가르치는 시기까지일 것이다. 이때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기보다 부모가 가정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를 이끌어간다. 물론 그렇다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밥먹고 씻고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습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단계 이미지 형성기는 그런 의미에서 '태교'라는 형식의 가정예배가 가능하다. 아기는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와 감정을 느끼며 예배를 통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고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아기가 태중에서 자라날 것이다.

5단계 상호 의존기에는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정예배를 이끌 수 있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할 때 가정예배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춘기 자녀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 습관의 예배에서 고백의 예배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겪는 혼란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기로 내어놓을 수 있다.

6단계 떠나보내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예배가 사라진다. 아니 대부분 5단계가 가기 전에 멈추는 경우가 많다. 앞서 제시한 대로 1단계 이전 가정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는 이 떠나보내는 시기와 가정 축소기 노후기도 생각해서였다. 떠나보내는 시기 부모들은 여러 갈등과 또한번 부모로 성장하는 시기가 된다. 이때 지속적인 가정예배로 부부가 남겨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부가 들어서 꾸려나가는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이다. 노인 자살률이 1위인 우리 나라에서 부모발달에서 6단계와 가정 축소기는 의미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부부는 습관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러나간다면 남은 인생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유형보완 가정예배

이렇게 부모 중심의 가정예배를 디자인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의 가정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교회 사례에서 답을 찾아보았다. 꿈꾸는 교회에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내와 아이를 교회 데려다주고 본인은 기다려야하니까 예배당 제일 뒤에 앉아 즐기기도 하고 앉아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부부학교에서 배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이의 아버지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아

버지들과 함께 단기선교를 가게 되었다. 봉사차원으로 생각하고 가셨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변화가 있었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이분의 사례를 보면 믿지 않는 부모가 믿음을 가지는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젊은 부부일 경우 또래 부부들과의 만남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내 아이와 친한 아이의 부모들과 만남.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여기에 열쇠가 있다. 가정예배를 지속하고 있는 가정에서 아이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자연스럽게 초대를 하는 것이다. 가정예배에 그대로 초대하기 보다는 우선 교제를 하며 기독교 가정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책 나눔이 될 수도 있고, 식탁의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확장하고 함께할 때 믿음이 전해 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우리 아이 내 아이 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아이까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가정유형보완 가정예배는 함께하고 확장된 가정예배라 할 수 있다. 우리가족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배라면 함께 함을 누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나가면서

미국 하버드대학 정신과 연구 팀은 인간의 삶을 오랫동안 추적 관찰해 온 그랜트(Grant)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자를 75년간 관찰한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중년기, 노인기를 거쳐 죽음에 이르는 생애 전반에 걸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포괄적이고 전향적으로 관찰했다. 연구자들은 핵심적인 결과 중 하나로 ‘아동기의 긍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보다 평생 동안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신앙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긍정적 경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가정예배라 할 수 있다.

가정예배가 어렵게 느껴지고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가정예배가 습관으로 삶으로 연결보다 뭔가 의무가 되고 과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부모가 되기 전 부부가 되었을 때 부터 가정예배가 시작되지 못하는 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감에 하지 말자.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롤모델인 동시에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다.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언제나 아이들 앞에 서야 하고, 그들을 도우며 키워 내야만 한다. 도망갈 수도 없고, 대충 갈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롤모델로서 부모가 얼마나 완전한가가 아니라, 어떤 것을 본받게 할 것이냐, 즉 무엇을 비취 줄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한다.⁶

부부가 오롯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그 부부가 부모가 되고 부모발달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도 달라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부부는 또 그들만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린다. 그런 모습 가운데 조손이 함께 자연스럽게 가정예배가 드러지는 가정문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모발달이나 부모역할 등 부모교육은 가정예배 교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생애 지속가능한 가정예배를 기대하며 좀 더 일찍 시작해보는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반응하고 성장해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⁶ 유한익,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 두란노

참고문헌

백홍영, 서아령, 최지혜 지음, 자녀와 함께 믿음의 가정문화 만들기, 예키즈
신형섭 지음, 가정 예배 건축학,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신형섭 지음, 예배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유한익 지음, 같이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 두란노
제인 밴 지음, 신형섭 옮김, 한국장로교출판사
토머스 고든 지음, 이훈구 옮김, 양철북
헨리 클라우드, 존 타운센드 지음, 이기섭 옮김, NO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 양육, 좋은 씨앗
홍종길, 박남숙 지음, 인생 12개 학교, 북클라우드